

광주 남구 통일열차, 올 4차례 달린다

상반기 360명 모집... 하반기 8월 1차 현장 접수·2차 온라인 진행 새마을호 교육전용 테마열차 투입

비무장 지대를 방문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광주 남구 통일열차가 오는 4월부터 달린다.

남구는 8일 “분단 현장을 체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한 만큼 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새마을호 특실 기준의 시설을 갖춘 교육 전용 테마열차를 배차해 탑승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 및 생생한 현장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효천역에서 최북단 도라산역을 오가는 남구발 통일열차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2차례씩 총 4차례 운행된다. 상반기 공개 모집을 통해 통일열차에 몸을 싣는 인원은 360명이며, 하반기 모집 인원 및 출발 일정은 오는 8월에 확정



광주 남구는 8일 “분단 현장을 체험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의가 대단한 만큼 통일열차 운행 횟수를 늘리고, 새마을호 특실 기준의 시설을 갖춘 교육 전용 테마열차를 배차해 탑승객들에게 더 나은 편의 및 생생한 현장 체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광주 남구 제공

된다. 상반기 통일열차는 오는 4월13일과 6월1일 각각 출발한다. 참가자 모집은 1차 현장 접수를 통해 65세 이상 주민 160명

을 선발하며, 2차 온라인 접수로 관내 주민 200명을 뽑는다.

지난해 온라인 선착순으로 모집하다 보니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접수 시작 7분 만에 모든 좌석이 매진돼 아쉬움을 토로하는 신청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13일부터 15일까지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차 현장 접수를 받는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오는 17일 추첨을 통해 160명을 선발한다.

2차 온라인 접수는 20일부터 선착순 모집 방식으로 진행하며, 접수 시작과 함께 탑승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조만간 남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남구는 분단 현장을 체험하는 열차인 만큼 내부 시설을 크게 강화한 교육전용

테마열차도 마련했다.

지난해 해당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문제가 거론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 객실 LCD 모니터와 영상교육 및 음향, 조명, 스마트 교육 시스템, 3D 빔프로젝터, 편의점, 식당, 휴게공간 등을 갖춘 새마을호 특실 기준의 열차를 배차하기로 한 것이다.

이 열차는 에듀룸 5량과 전망룸 2량, 이벤트룸 1량, 다목적룸 1량 등 총 9량으로 구성됐으며, 좌석 간 여유 있는 공간 확보로 불편함 없이 장시간 여행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김병내 청장은 “지난해 큰 관심 속에 통일열차가 힘차게 출발했고, 올해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더 크게 모아 평화를 향한 디딤돌을 차곡차곡 쌓고 있다”며 “우리의 통일염원을 열차에 실어 북녘땅 더 깊숙이, 더 멀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비 기자 jubik.kang@jnilbo.com

서구,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전 국민 참여 가능 최우수상 100만원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로 행정혁신을 이끌어낸 광주 서구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2023년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8일 서구에 따르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접수 내용은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소상공인 생업 여건 개선 △친환경·신산업분야 규제합리화 △일자리 창출 △출산, 육아,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복지 저해 규제 △주민 일상 불편 개선 등 생활 및 경영과 관련한 아이디어 등이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광주 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공모제안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광주 서구 경열로 33, 서구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혁신팀, 062-360-7037)이나 전자메일(chlekdms@korea.kr) 또는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100만원 상당) △우수 2명(50만원 상당) △장려 17명(20만원 상당) 등 우수작을 뽑아 행안부장관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혜인 기자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 1·2호 탄생

충장로 상인회장 자녀·배우자 등

광주 동구는 지난 7일 고향사랑기부제 고액 기부자 1·2호가 탄생했다고 8일 밝혔다. 고액 기부자 1호는 500만원을 기부한 정다운씨로 정일성 충장로 1~3가 상인회장의 자녀다.

2호 홍인숙씨 역시 500만원을 기부했다. 홍씨는 충장로 4~5가, 황금동 상인회장 주승일씨의 배우자로 알려졌다.

정다운씨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인 동구를 지지하는 마음에 뜻을 보탤”고 전했다.

홍인숙씨는 “일평생 맘 흘리며 노력한 남편의 일터이자 광주 종갓집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사회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의료보건, 환경, 공동체 활성화,

인규 유입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임택 청장은 “동구를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기부가 이어져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동구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수제정 △김치 △커피 △별별동구 패키지 △민화그림 △관광굿 패키지 △은제품 등 총 21개로 구성돼 있다.

정성현 기자

광산구 ‘폐기물 관리 길라잡이’ 제작

광주 광산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폐기물 정보 등을 담은 ‘폐기물 관리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폐기물 관리 길라잡이는 폐기물 관련 업체에 개정된 법령 및 주요 지적사항 등

을 안내해 위반사업장을 줄이고 폐기물의 올바른 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한 매뉴얼이다.

업종별 폐기물 관련 인허가(신고) 절차 및 관련서식,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

인 기준 및 방법,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및 주요 위반사례 등이 담겼다.

광산구는 총 400부를 제작해 구 내 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폐기물 관리 길라잡이가 업체의 적정한 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철 기자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